

강서대학교 도서관 “2025 독후감 공모전” 제출 양식

이름		연락처	
학과		학번	
도서명	「소크라테스의 변론 : 크리톤 / 파이돈 / 향연」		
저자	플라톤	출판사	숲

<유의사항 및 작품 활용에 관한 동의>

1. 응모한 독후감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8조, 제10조)
2. 응모한 독후감의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하며, 분쟁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3. 공모요건에 맞지 않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한 독후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수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수상취소 및 장학금(시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독후감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독후감 공모전에 선정된 자료는 필요한 경우 독후감의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거나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장학금(시상금) 지급의 결격사유가 있을시 장학금(시상금) 일체 반환 및 선정이 취소처리 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며 2025 독후감 공모전에 독후감을 제출합니다.

신청인 (서명)

<개인정보 제공,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5년도 도서관 독후감 공모전 전반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항목 : 이름, 연락처, 학과, 학번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4. 동의거부 :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공모전 참가 및 수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제목 : 우리가 소크라테스에게 사과해야 하는 이유.

시작하기 전에, “서양 철학의 전통은 플라톤의 각주(footnotes)에 불과하다.(The safest general characterization of the European philosophical tradition is that it consists of a series of footnotes to Plato.)” 이 표현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 이 표현은 영국의 철학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가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한 플라톤의 영향력에 대해 평가하며 남긴 말로, 서양 사상들은 플라톤의 철학을 수정하거나, 동의하여 이어받거나, 반박하거나, 피하는 등의 변형을 이루었을 뿐 플라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등장했다. 플라톤은 철학자라면 고민해 볼 수 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이데아는 실재하는가?’ ‘감각 세계와 진리의 관계는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선(善)은 객관적인가?’ ‘철학자는 정치에 개입해야 하는가?’ 등등, 이미 그런 질문들을 맨 앞에 선 채로 던지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 다른 길을 걸었지만, 이데아를 세계 밖이 아닌 세계 안에 둬으로써 플라톤의 문제의식을 변형해 계승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플라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철학자라기보다는, 그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이어간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형이상학』에서 제시된 ‘형상과 질료’ 개념은 그 예시로, 세계를 이루는 형상과 질료의 궁극적·절대적 형태로 제일질료와 순수형상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개념만이 존재하는데, 이는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해 일부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플라톤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리고 플라톤 철학의 출발점에는 언제나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있었다. 이제부터는 독후감의 본론이자 가장 중요한 인물인 소크라테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현대에는 비난의 의미로도 사용되나, 본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뜻을 담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을 남긴 소크라테스는 대중에게는 ‘4대 성인(공자, 예수, 부처와 함께)’의 일원으로 불리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는 책의 제목처럼,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살아가던 민주정 체제의 아테네에서 재판을 받았고, 마지막 순간은 사형 집행으로 독배를 마셔 숨졌다. 소크라테스는 오늘날 ‘성인’으로 불릴 만큼 중요한 인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생전에 아테네 시민들에 의해 죄인으로 재판받고, 다수결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어째서 당시의 아테네와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한명의 죄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다수결, 즉 아테네의 시민들의 선택으로 사형에 처하게 된 걸까?

소크라테스는 청년들과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지식을 전수하며 청년들의 배움을 돕는 것에 평생을 바쳤다. 스승으로서의 소크라테스는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그는 지식을 전수하는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았다. 당시 수사학, 논쟁술 지식을 전수하

면서 돈을 모으던 소피스트들과는 달리, **참된 지식은 돈으로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그저 청년들이 무료로 자신과 토론을 하며 지식을 쌓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알려주듯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산파술’이라는 기술을 통하여 청년들을 가르쳤는데, 이는 출산 과정에서 산모를 돕는 사람인 산파에서 따온 것으로, **‘자신은 과정을 돕는 산파일 뿐, 지식의 삶과 도출은 도움을 받는 그 대상이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 진짜 가르침’**이라는, 그의 교육에 대한 철학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렇게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아테네의 쇠파리’라 칭하며 청년들을 가르치고, 크고 둔한 말과 같은 아테네 시민들을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스스로 성가시고, 따갑게 하는 쇠파리의 역할을 자처해 아테네 시민들의 마음을 자극했다.

문제는 이것이 곧 소크라테스의 죽음의 원인이 되어 준 셈이었다는 것이다. 아테네의 **멜레토스, 아니코스, 리콘** 등의 인물은 소크라테스가 새로운 신을 들여오려 하고,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신성모독죄’와 ‘청년들을 타락시킨 죄’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다. 아테네의 쇠파리가 무지한 아테네 시민들의 마음을 자꾸만 건드려 움직이게 하니, 사회가 그 쇠파리를 죽이기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시민들이 겪는 깨달음과 마음의 동요의 경험은 권력자 및 귀족들에게는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진리가 작동한 듯하다. 그들은 각각 종교적 권력, 정치적 권력, 선동을 통해 시민들을 깨어나게 하려는 쇠파리를 최대한 빠르게 막아야만 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내려질 형벌의 부당함과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죄’에 대하여 그의 변론을 이어갔다. 사형은 개인에게 국가가 행하는 최대의 화이고, 금고형은 자유의 박탈이었다. 벌금형은 가난한 자신에게 다시 금고형으로 돌아올 것이 뻔했으며, 추방은 이미 아테네가 자신을 역겨워한다는 말과 함께 때문에 어느 마을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방랑할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는 이 부당한 판결로부터 도망칠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다. 그의 친구 크리톤은 돈과 인맥을 동원한 안전한 탈옥을 제안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법이 잘못 집행되었다고 해서 법 자체를 파괴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는 체제에 대한 불복종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법과 맺은 약속에 대한 책임이었다. 부당한 사형 선고라는 악을 탈옥이라는 또 다른 악으로 약속을 깨면 서까지 대응하는 것은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다.

청년들을 타락시키는 행동에 대해서는 말, 즉 토론을 하지 않는 것, 침묵을 지키고 살 것을 제안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좋고 옳은 것을 나누는 행위인 자신의 토론을 금하는 것은 신에 대한 불복종이기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즉 자신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는 멜레토스의 주장을 이렇게 받아친 것이다.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고, 신은 자신이 그 좋은 일을 행하도록 명령한 것인데, 자신이 이에 왜 불복종을 해야 하

나는 뜻이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과 그의 죽음이 내게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문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저자이자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 역시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아테네 시민들의 선택이었다는 것에 큰 트라우마를 안고 민주주의라는 체제에 큰 회의감을 느꼈는데, 이는 고대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위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주의 체제가 항상 선을 고른다고 절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동이나 극단주의에 물들면 민주주의는 결국 새로운 탄압의 동기부여로 변질될 확률이 높다. 소크라테스를 기소하여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멜레토스, 아니코스, 리콘 역시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 관점으로 도덕·정의·국민 정서라는 명분 / 정치 권력과 다수결 미디어, 선동, 말의 기술 역시 그 뒤의 대중의 지지와 함께 그 위험한 목적을 이룬 셈이다.

최근 현대 사회에서도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 아래 폭력적 수단이나 극단적 선택이 정당화되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고대 아테네의 사례가 결코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SNS와 함께 포퓰리즘, ‘우리 vs 그들’ 구도의 고조화로, 이미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이 항상 정의로운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매년 보는 세상에 살게 되었다. 소크라테스의 사형처럼, 대중은 정의의 이름으로 오히려 더 큰 만행을 저지르고 있을 수도 있다. 민주주의 장점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아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대중에게 죽임을 당했던 소크라테스에게는 죽음 역시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파이돈]에서는 투표로 사형이 확정된 소크라테스가 죽음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보인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철학자는 평생 죽음을 연습해 온 존재라고 말한다. 이 장면은 소크라테스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미화가 아니라, 그가 끝까지 스스로의 논리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는 끝까지 질문했고, 끝까지 책임졌지만 우리는 불편한 질문을 제거하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옳은 것을 사랑하고 청년들에게 모순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테네를 툭툭 건드리는, 정의를 사랑한 쇠파리였지만, 대중은 그 정의로 결국 소크라테스를 죽이고 말았다. 지금 현대 사회의 ‘쇠파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 쇠파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민주주의가 정의의 탄압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리는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통해, 이 독후감을 마친다. 다시 한 번 소크라테스의 허망하지만 찬란했던 죽음에 대하여, 사과의 뜻을 전한다.

강서대학교 도서관 “2025 독후감 공모전” 제출 양식

이름		연락처	
학과		학번	
도서명	「미국의 민주주의 1」		
저자	알렉시 드 토크빌	출판사	한길사

<유의사항 및 작품 활용에 관한 동의>

1. 응모한 독후감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8조, 제10조)
2. 응모한 독후감의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하며, 분쟁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3. 공모요건에 맞지 않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한 독후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수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수상취소 및 장학금(시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독후감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독후감 공모전에 선정된 자료는 필요한 경우 독후감의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거나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장학금(시상금) 지급의 결격사유가 있을시 장학금(시상금) 일체 반환 및 선정이 취소처리 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며 2025 독후감 공모전에 독후감을 제출합니다.

신청인 (서명)

<개인정보 제공,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5년도 도서관 독후감 공모전 전반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항목 : 이름, 연락처, 학과, 학번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4. 동의거부 :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공모전 참가 및 수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제목 : 북한의 공식 명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세계에는 수많은 국가가 존재하지만, 왜 미국은 오랫동안 정치·경제·군사 등 여러 영역에서 ‘1위 국가’로 평가받아 왔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국가 비교의 차원을 넘어, 한 사회를 지탱하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가시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요인이 미국의 정치 체제, 특히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니, 미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제도 바깥에서 바라본 토크빌의 시선이 궁금해졌고, 그렇게 이 책을 집어 들게 되었다.

책을 펼치기 전까지 민주주의는 나에게 주로 제도의 문제였다. 선거, 헌법, 권력 분립과 같은 장치들이 민주주의를 성립시키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학생으로서 경험한 한 아르바이트 현장은 이러한 인식을 흔들어 놓았다. 사장은 자신의 권한을 절대적인 것처럼 행사하며 아르바이트생을 일방적으로 통제했고, 그 관계 속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민주주의가 제도 안에서는 성립할 수 있어도, 일상의 관계 속에서는 얼마든지 무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그때는 이게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다만, 이 관계가 민주적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딘가 불편하다는 느낌만은 분명했다. 이 경험은 민주주의를 정치제도 너머의 문제로 바라보게 만든 계기였고, 이후 이 책을 읽는 내내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1』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헌법이나 제도에서 찾지 않는다. 그가 주목한 것은 미국 사회 전반에 형성된 ‘평등한 조건’이라는 사회적 상태였다. 신분제가 약화되고 개인이 출신이 아닌 능력과 노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은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을 정치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인식하게 만든다.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제도에서 출발한다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시민이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가 먼저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국가가 선언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현되는 체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적 제도를 채택하고 관련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시민이 정치 과정에서 배제되고 비판과 토론이 제한된다면 민주주의는 형식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 대목에서 북한의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민주주의는 이름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더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무엇이냐 불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 강점으로 제시한 또 다른 요소는 지방자치였다. 그는 타운십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가 시민들에게 정치 참여의 경험을 제공하며,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시민들은 지역 사회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책임감과 공공성을 배우고, 이는 중앙 정치에 대한 무력감과 무관심을 극복하는 토대가 된다. 민주주의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규칙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축적되는 참여의 경험을 통해 유지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결사의 자유 역시 토크빌이 강조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다.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행동하는 과정은 시민 사회를 형성하고,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삶을 과도하게 침범하는 것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결사의 경험이 반복될수록 시민은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갖게 되고, 민주주의 역시 제도 밖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느꼈다. 반대로 시민들의 자율적인 결사와 토론이 제한된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시민 사회가 형성되기 어렵다.

한편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함께 그 위험성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의견이 절대화될 경우 나타나는 ‘다수의 폭정’을 경고하며, 민주주의 역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민주주의가 단순한 다수결의 원리로 환원될 수 없으며, 소수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가 함께 보호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갖는 체제임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비판적 사고와 책임 있는 참여가 지속될 때에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 책을 덮으면서, 그동안 내가 민주주의를 쉽게 생각해왔던 것은 아닐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유지되는 체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되고 점검되어야 하는 상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주의는 선거가 있는 날에만 작동하는 체제가 아니라, 일상의 관계 속에서 권력에 질문하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 인상 깊게 다가왔다. 나는 민주주의를 평가할 때 제도보다 먼저, 그 사회의 일상적 관계를 떠올리게 되었다. 사람들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지, 권

력이 질문 앞에서 멈출 수 있는지가 민주주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결국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민주주의는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이다. 토크빌의 답은 명확하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이름이나 헌법 조항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주체로 인식하고 일상 속에서 권력과 관계를 점검하는 사회적 상태 속에서 존재한다. 북한의 공식 명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그러나 토크빌이 말한 민주주의는 이름이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를 주체로 인식하는 사회 그 자체였다.

<우수상>

강서대학교 도서관 “2025 독후감 공모전” 제출 양식

이름		연락처	
학과		학번	
도서명	「소크라테스의 변론 : 크리톤 / 파이돈 / 향연」		
저자	플라톤	출판사	숲
<유의사항 및 작품 활용에 관한 동의> 1. 응모한 독후감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8조, 제10조) 2. 응모한 독후감의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하며, 분쟁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3. 공모요건에 맞지 않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한 독후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수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수상취소 및 장학금(시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독후감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독후감 공모전에 선정된 자료는 필요한 경우 독후감의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거나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장학금(시상금) 지급의 결격사유가 있을시 장학금(시상금) 일체 반환 및 선정이 취소처리 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며 2025 독후감 공모전에 독후감을 제출합니다. 신청인 (서명)			
<개인정보 제공,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5년도 도서관 독후감 공모전 전반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항목 : 이름, 연락처, 학과, 학번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4. 동의거부 :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공모전 참가 및 수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제목 : 결핍과 불안을 마주하는 태도

우리는 삶에서 느껴지는 부족함을 오래 바라보는 법보다 그것을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에 익숙해진 사회에 살고 있다. 외로움은 즉각적인 관계로 전환되고 불안은 끊임없는 자극으로 덮이며 삶의 방향에 대한 질문은 비교 속에서 흐려진다. 유튜브와 SNS는 타인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전시하며 개인이 느끼는 흔들림을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닌 뒤처짐의 신호처럼 인식하게 만든다. 이 사회에서 멈춤과 망설임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보다 지워야 할 상태로 취급된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매끄럽게 채워지지 않는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혹은 인생의 중요한 국면 앞에 설수록 우리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마주한다. 나 역시 이러한 순간마다 그 감정을 견디기보다 일정과 자극으로 하루를 가득 채우며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흘러보낸 시간 끝에 남은 것은 안정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피로였다.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 파이돈 / 향연』은 내가 회피해왔던 이러한 불편한 상태를 해소의 대상이 아니라 질문의 자리로 다시 놓이게 만들었다.

플라톤이 그려낸 소크라테스의 삶은 우리가 흔히 불안 앞에서 취하는 태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삶의 불안정한 순간을 서둘러 정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머물며 질문하는 태도를 선택한다. 이 태도는 『향연』에서 소크라테스가 전한 에로스의 개념을 통해 분명해진다. 에로스는 이미 충만한 신이 아니라 알고 있으며 아직 충분하지 않은 존재이다. 사랑은 빈자리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부족함을 인식한 상태에서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움직임이다. 이 개념을 곱씹으며 나는 그동안 내가 불안과 외로움을 얼마나 빠르게 정리하려 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감정은 잠시 머물다 사라져야 할 것으로 여겨졌고 그 의미를 묻는 일은 늘 뒤로 밀려났다. 그러나 『향연』 속 에로스는 인간이 불완전하기에 사유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부족함이 없다면 탐색도, 방향 설정도 시작되지 않는다. 이 관점은 내가 느껴왔던 불안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삶을 점진하게 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사형이라는 극단적 상황 속에서도 소크라테스는 흔들리지 않았다. 『변론』에서 그는 다수의 시선과 두려움에 삶을 맞추지 않고 끝까지 질문을 이어간다. 이는 확신에서 비롯된 담담함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있는 내적 단단함이다. 삶의 의미는 안전한 자리보다 흔들리는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태도는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내가 접한 호스피스 돌봄 장면과 겹쳐 보였다. 호스피스에서 죽음은 단번에 이해되거나 극복되는 사건이 아니다. 환자와

가족은 부정, 분노, 슬픔, 체념을 오가며 남은 시간을 마주한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함께 견디며 존엄을 지켜내는 일이다. 서둘러 감정을 정리하려 할수록 환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무리할 기회를 잃는다.

『파이돈』에서 드러나는 소크라테스의 죽음 역시 이러한 돌봄의 본질과 닮아 있다. 그는 죽음을 회피하지도, 미화하지도 않는다. 다만 죽음을 삶의 연장선에서 사유하며 자신의 영혼과 삶의 태도를 끝까지 유지한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을 중요하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영적 간호 역시 단순한 위로를 넘어 존재의 의미를 함께 묻는 돌봄이다.

『크리톤』에서의 선택 역시 쉽지 않은데 그는 생존이라는 즉각적인 안도보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삶의 기준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스스로의 삶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상임을 알 수 있었다. 호스피스 현장에서 환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하고자 할 때 의료진이 느끼는 윤리적 갈등 역시 이와 닮아 있다. 정답을 대신 선택해주는 것이 아닌 불편함을 감수하며 그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가 진정한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다.

『변론』, 『크리톤』, 『파이돈』, 『향연』을 관통하는 소크라테스의 삶은 결국 하나의 태도로 귀결된다. 삶의 불완전함을 서둘러 제거하지 않고 그 안에서 질문하며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가는 태도이다. 흔들림과 부족함을 실패로 인식하고 덮으려 하는 우리에게 소크라테스는 그 불편한 자리에서 삶의 방향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결핍을 참기보다 즉시 채우려는 경향이 강하다. SNS와 유튜브는 타인의 완벽한 순간을 보여주며 결핍을 비교 속에서 소비하게 만들고 외모와 성취, 사랑을 단기간에 충족하려는 시도는 일시적 만족에 머물 뿐 진정한 내적 성장을 가져오지 못한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며 나는 불안을 서둘러 없애기보다 잠시 멈춰 내면을 돌아보고 질문을 던지는 태도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소크라테스의 삶은 이러한 성찰의 구체적 모델을 제시한다. 그는 주변의 시선이나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불완전한 상태 속에서도 끊임없이 질문하며 자신의 삶의 기준을 끝까지 지켰다. 이를 통해 흔들림 속에서도 스스로의 선택과 기준을 유지하는 힘, 즉 진정한 내적 단단함이 형성된다는 것을 배웠다.

이는 호스피스 간호 현장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갖는다. 환자와 가족이 삶과 죽음을 직면할 때 불안을 서둘러 해소하기보다 그 감정과 함께 머물며 스스로의 선택과 과정을 존중하도록 지지하는 돌봄이 필요하다. 생명을 연장하는 책임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동시에 존중하는 긴장 속에서 균형을 잡는 일은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삶의 기준을 지키는 태도’를 간호 실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인간

은 죽음이라는 근본적 공허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며 남은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스스로 묻게 된다. 허전함을 즉시 없애려 하기보다 의미를 바라보고 선택을 고민하는 과정은 삶의 공허를 단순 제거의 대상이 아닌 성찰의 장으로 전환한다. 호스피스에서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존엄하게 마주하듯 내면의 빈자리 역시 우리를 삶의 방향으로 이끄는 질문이 될 수 있다. 영적 간호가 존재의 의미를 함께 묻는 돌봄인 것처럼 공허와 결핍 역시 자기 성찰과 선택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마지막으로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며 흔들림과 불안 속에서도 마음에 던진 물음을 놓지 않고 성실히 성찰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잠시 멈춰 질문하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순간들이야말로 내 성장과 성숙을 증명하는 시간임을 이제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강서대학교 도서관 “2025 독후감 공모전” 제출 양식

이름		연락처	
학과		학번	
도서명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톤, 향연		
저자	플라톤	출판사	숲

<유의사항 및 작품 활용에 관한 동의>

- 응모한 독후감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8조, 제10조)
- 응모한 독후감의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하며, 분쟁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공모요건에 맞지 않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한 독후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수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수상취소 및 장학금(시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독후감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독후감 공모전에 선정된 자료는 필요한 경우 독후감의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거나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시상금) 지급의 결격사유가 있을시 장학금(시상금) 일체 반환 및 선정이 취소처리 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며 2025 독후감 공모전에 독후감을 제출합니다.

신청인 (서명)

<개인정보 제공,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5년도 도서관 독후감 공모전 전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항목 : 이름, 연락처, 학과, 학번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 동의거부 :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공모전 참가 및 수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제목 : 성찰하는 삶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해진 듯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편협해진 시대를 살고 있다. 손안의 기기를 통해 방대한 지식에 접속하지만, 알고리즘이 선별해 준 정보만을 소비하며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진실이라 믿는 ‘확증 편향’은 우리 사회를 고집스러운 침묵 속에 가두어 버렸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2,400년 전 아테네의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던 소크라테스의 목소리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단순히 죽음을 앞둔 한 철학자의 고별사가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혜롭다 착각하며 잠들어 있는 우리 사회를 향해 날아오는 날카로운 ‘등에(말을 깨우는 파리)’의 일침이다. 특히 ‘향연’이라는 어려운 한자어 대신 ‘잔치’라는 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고전을 일상의 언어로 복원해내어,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관념이 아닌 실천적 지혜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본인은 이 책을 통해 과거 축구 선수 시절의 맹목적인 질주를 반성하고, 이제 교육자로서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찾고자 한다.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자는 없다”는 델포이 신탁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지혜롭다는 정치가와 시인들을 찾아다닌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까지 안다고 착각하는 오만에 빠져 있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인류 철학사의 위대한 결론인 ‘무지의 자각’에 도달한다.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다”는 이 역설적인 고백은, 지식이란 소유하는 결과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검토해야 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이 대목을 읽으며 나는 과거 축구 선수로서 오직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매몰되어 있던 시절의 나를 뼈저리게 마주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는 불안감은 나를 늘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동료들을 앞지르기 위해 나는 하루에 네 번이라는 살인적인 훈련 일정을 스스로에게 강요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시작된 첫 훈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내 삶의 시계는 오직 기량 향상이라는 목표에만 맞춰져 있었다. 육체는 끊임없이 비명을 질렀고 무릎과 발목에는 부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번 한번만 버티면 목표에 닿을 수 있을 거야”라며 내면의 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소크라테스가 지적한 아테네 시민들의 모습이 바로 그때의 내 모습이었다. 나는 축구

기술을 연마하는 데는 하루 4번의 시간을 쏟았지만, 정작 “나는 왜 축구를 하는가?”, “이 노력이 내 영혼을 훌륭하게 만들고 있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에는 단 한 줄의 시간도 내어주지 않았다. 그렇게 3년을 버틴 끝에 원하던 결과를 얻었지만, 승리의 기쁨은 찰나였고 내 안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영혼은 이미 메말라 버렸고, 찾아온 것은 지독한 번아웃이었다.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따져 보지(검토하지) 않는 생활이란 사람으로서 사는 보람이 없다” 는 경고를, 나는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픈 실패를 통해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축구를 그만둔 뒤 만난 이 책은 새로운 삶의 전술 지침서가 되어주었다. 특히 『잔치』 편에서 묘사된 사랑(에로스)의 단계적 승화는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육체적인 성취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하여 결국 진리와 선함이라는 영혼의 가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과거의 나는 ‘육체의 임신’, 즉 기록을 내는 일에만 몰두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정으로 내 영혼을 훌륭하게 만드는 길인지 검토하는 용기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제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조교로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 나의 목표는 이제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코치가 아니다.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혹은 나보다 더 절박하게 달리고 있을 후배 선수들이 성공이라는 감옥에 갇혀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고 싶다. 부상이 찾아와도 “이번만 버티자”며 영혼을 갉아먹고 있을 친구들에게, 잠시 축구화 끈을 풀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선물하고 싶다. 그것이 내가 소크라테스에게 받은 지혜를 사회에 다시 나누는 방식이자, 나의 아픈 경험을 가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 믿는다.

소크라테스는 사형 판결 앞에서도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 그는 죽음을 피하기보다 악(부정)을 피하기가 훨씬 어렵다는 신념을 지키며 기꺼이 독배를 마셨다. 그의 죽음은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영원한 물음표’로 남았다.

나는 이제 운동장 위에서 후배들의 영혼을 깨우는 따뜻한 ‘등에’가 되고자 한다. “지금 너의 영혼은 안녕한가?”라고 끊임없이 따져 묻게 함으로써, 그들이 운동장 위에서 승리하는 기계가 아닌 존엄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싶다. 철학은 삶의 현장과 밀착되어야 한다. 나의 독후감 또한 책 속에 머무는 글이 아니라, 내일의 훈련장에서

후배들과 나눌 실천적 지혜가 되길 바란다. 2,400년 전 아테네의 노철학자가 건넨 지혜의 잔치는, 책장을 덮는 지금 비로소 나의 새로운 삶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

강서대학교 도서관 “2025 독후감 공모전” 제출 양식

이름		연락처	
학과		학번	
도서명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 파이돈 / 향연		
저자	플라톤	출판사	숲

<유의사항 및 작품 활용에 관한 동의>

- 응모한 독후감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8조, 제10조)
- 응모한 독후감의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하며, 분쟁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공모요건에 맞지 않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한 독후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수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수상취소 및 장학금(시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독후감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독후감 공모전에 선정된 자료는 필요한 경우 독후감의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거나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시상금) 지급의 결격사유가 있을시 장학금(시상금) 일체 반환 및 선정이 취소처리 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며 2025 독후감 공모전에 독후감을 제출합니다.

신청인 (서명)

<개인정보 제공,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5년도 도서관 독후감 공모전 전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항목 : 이름, 연락처, 학과, 학번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 동의거부 :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공모전 참가 및 수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제목 : ‘너’ 와 ‘나’ 는 ‘하나’

사랑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어떤 것이며,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책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 파이돈 / 향연’에서 그중 ‘향연’에서는 에로스, 즉 사랑에 대해 다루고 있다. 향연은 다시 말해 플라톤의 ‘연애론’이라고도 말해볼 수 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었다.

향연 속 아리스토파네스는 에로스에 대해, 본래 사람은 ‘세 종류’였다고 말하며 시작한다. 안드로귀노스 신화 속 원초적 인간은 두 사람이 합쳐진 형태를 가졌다고 한다. 각각 두 여성이 결합한 모습과 두 남성이 결합한 모습,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함께 가진 세 번째 성까지. 그러나 제우스에 의해 반으로 나뉘어, 지금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태초부터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쪼개져서 만들어진 ‘반쪽짜리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읽고, 신화를 잘 들려주는 뮤지컬 곡이 하나 떠올랐다. ‘The origin of love(사랑의 기원)’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는 뮤지컬 영화 ‘헤드윅’의 삽입곡으로 잘 알려진 곡이다. ‘향연’에서 소개되는 이 신화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인데, 이 노래를 부르며 곡에 의지하는 주인공 ‘헤드윅’은 자신의 사랑, 즉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는 성전환 수술에 실패하여 여성도 남성도 아닌, 말 그대로 ‘반쪽짜리 사람’이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반대편 조각에 끌림을 느끼며 대표적으로 여성은 인간 남성을, 남성은 인간 여성을 ‘사랑’하는 것을 에로스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 인물과 에로스에 대해 생각하며 여성이라고 꼭 인간 남성을 사랑할 필요가 없고, 남성이라고 꼭 인간 여성을 사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는 흔히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향연을 읽고, 또 노래를 들으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내가 내린 대답은 ‘내가 완전해지기 위한 것’이었다. 뮤지컬 ‘헤드윅’ 속에서 사랑이란,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 ‘반쪽을 찾는 여행’이었다. 완전해지고 싶은 그 욕망을 ‘에로스’라고 정리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가 불완전한 ‘반쪽짜리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욕망이다. 사람은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욕구를 품고 있다. 하지만, 내가 보았을 때 그것만으로는 무엇이 진정한 ‘나’의 반쪽인지는 알 수 없는 것 같다.

‘나’를 완전하게 만들 ‘반쪽’은 무엇일까? 그것은 꼭 이성이며 사람의 형태여야만 할까? 단순히 ‘인간’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어느 형태든 간에, 나를 완전하게 하는 것을 찾아 떠나는 여행과 그 끝에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무엇에서 사랑을 찾아야 하며, 무엇이 사랑일까? 사랑의 기원을 지난 다음 목적지는 사랑과 욕구, 그 ‘에로스’를 알아보는 것이다. 향연에서 에로스는 페니아와 포로스의 아들로서, 언제나 결핍한 동시에 풍요로운 성질을 가진 것으로 소개된다. 죽지 않는 존재도 죽은 존재도 아니며 사랑, ‘에로스’는 지혜와 무지 사이에 있다. 우리에게 에로스는 소유하고 싶은 욕망으로 이어진다. 인간이 좋은 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소유하고자 하고,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욕구다. 즉 디오티마의 에로스란 불사에 대한 욕망과 그 사랑이다. 영원하지 않기에 영원을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결핍된 동시에 풍요롭기에 그것을 바라게 되는 것이다.

영원, 그 불사를 얻으려는 욕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름다운 것 안에서의 생산, 다시 말해 출산으로 이어진다. 임신과 출산은 가사자 생물 안에 있는 불사적인 것이다.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때 만들어지는 것은 무한하다. 향연에서 말하는 에로스의 기능은 아름다운 것 속에서 ‘출산’하는 것이다. 쉽게 말한다면 연인 간의 사랑은 한계에 부딪히거나 끝나기 쉽지만, 그 사랑이 맺은 출생으로 사랑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말하는 ‘출산’을 반드시 인간이 인간을 출산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싶지는 않다. 말했듯이, 사랑이란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는 여행이다. 그 반쪽이 반드시 인간이어야 할까?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어떤 것을 사랑하고, 불사적인 탄생을 이루며 그 사랑을 영원히 남기는 것, 그것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음악이나 책, 지식과 여러 기록 등 이미 몇십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도 영원히 남아있는 것들. 이들 모두가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창작은 무언가와 사랑에 빠질 때 비로소 나오는 것이다. 지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식을 욕망할 수 없고, 또 지식이 너무 넘치거나 부족하다면 그 지식을 더는 욕망하지 않게 된다. 지식과 사랑에 빠져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고, 그렇게 태어난 것에 한계는 없다. 나에게 있어 사랑에 빠진다는 것, 창작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반쪽짜리 나’는 ‘하나의 나’로 완성된다. 그런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 겪는 갈등과 괴로움은 필연적이다. 사랑을 찾고자 하는 욕망 자체가 결핍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며 홀로 떠난 여정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고독함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고, 다른 것에 이끌릴 수 있기도 하다. 우리는 고독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나를 이해하는 반쪽’은 주인공 헤드윅처럼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당장 느껴지는 외로움을 해결해 줄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그 필연적 여정 속에서 ‘반쪽짜리인 나’부터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너’와 ‘나’가 합쳐져 ‘하나’를 이룬다면, 반대로 말해서 그 ‘하나’는 ‘너’도 ‘나’도 같은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듯이 말이다.

강서대학교 도서관 “2025 독후감 공모전” 제출 양식

이름		연락처	
학과		학번	
도서명	소크라테스의 변론 : 크리톤 / 파이돈 / 향연		
저자	플라톤	출판사	숲

<유의사항 및 작품 활용에 관한 동의>

- 응모한 독후감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8조, 제10조)
- 응모한 독후감의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하며, 분쟁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공모요건에 맞지 않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한 독후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수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수상취소 및 장학금(시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독후감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독후감 공모전에 선정된 자료는 필요한 경우 독후감의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거나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시상금) 지급의 결격사유가 있을시 장학금(시상금) 일체 반환 및 선정이 취소처리 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며 2025 독후감 공모전에 독후감을 제출합니다.

신청인 (서명)

<개인정보 제공,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5년도 도서관 독후감 공모전 전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항목 : 이름, 연락처, 학과, 학번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 동의거부 :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공모전 참가 및 수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제목 : **소크라테스의 재발견**

【제출양식】

분량 : A4용지 2매 이상 3매 이하 (표지 제외)

글자모양 : 휴먼명조, 글자크기 12포인트,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80%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20mm, 머리말/꼬리말 10mm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운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아는 철학자로 기억되는 인물이었다. 질문을 통해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 옳은 말을 했기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 그때의 나는 소크라테스를 이해했다기보다 외웠고, 시험 범위 안에서 이미 결론 난 인물처럼 받아들였다. 그런데 대학에 와서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직접 읽게 되면서, 교과서 속 소크라테스와 책 속 소크라테스 사이에 생각보다 큰 거리감이 있다는 걸 느꼈다. 그냥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태도 자체를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책에서 소크라테스는 무죄를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재판을 무죄를 증명하는 절차로 만들기보다, 오히려 시민들과 재판관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묻는 자리로 바꿔 놓는다. 그는 결백을 주장하기보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통해 상대 논리의 빈틈을 드러낸다. 철학자로서는 일관되지만, 재판이라는 현실적 상황에서는 어쩐지 맞지 않는 방식처럼 느껴졌다. 이 자리는 설득이 필요해 보이는데, 소크라테스는 설득을 목표로 삼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읽는 내내 “지금 은 이기려고 말해야 하는 순간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꾸 끼어들었다.

특히 반복해서 등장하는 “나는 지혜롭지 않다” 라는 말은 처음엔 겸손처럼 보였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 말이 단순히 자기 낮춤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해졌다. 오히려 그는 나는 모른다는 걸 안다는 점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고 있었다. 그 구분이 존경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거슬릴 것 같기도 했다. 누군가에게는 “너희는 모르는 것도 모른다” 는 말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나는 소크라테스가 왜 반감을 샀는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됐다. 말이 틀려서 미움을 받은 게 아니라, 말이 옳더라도 그 옳음을 드러내는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소크라테스는 타협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다. 당시 재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감정적인 호소나 가족을 내세운 부탁을 그는 정의롭지 않다고 말하며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나는 옳은 선택과 현명한 선택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의 태도는 분명 옳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신을 더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결정이기도 했다.

사형 판결 이후의 태도는 이 책에서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기는 부분 중 하나였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죽음은 무의식의 상태이거나 더 나은 세계로의 이동일 수 있다고 말한다.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쉽게 공감되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개인적인 비극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철학자로서 살아온 삶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부분을 읽으며 나는 소크라테스의 태도가 과연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소크라테스 역시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의 태도는 초연하다기보다는 매우 의식적이고 결단력 있는 선택처럼 느껴졌다.

또 한편으로는 소크라테스의 행동이 당시 아테네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도 떠올리게 되었다. 그는 개인의 신념을 지키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역할까지 충분히 고려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았다. 질문을 던지고 비판하는 역할은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그 방식이 항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이상적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에 긴장을 만들어내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느꼈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정말로 피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조금만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시민들의 불안을 고려했다면 그는 살아남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삶의 기준이 흔들리는 것을 받아들이기보다, 그 결과를 감수하는 선택을 했다. 이 선택은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그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 일관된 결정이기도 했다.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아테네의 말벌에 비유한 부분도 인상 깊었다. 시민들을 계속 자극하고 질문을 던지는 존재이기에 결국 제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자신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라기보다는, 스스로 감당하기로 한 선택의 결과처럼 보였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통해 나는 소크라테스를 무조건적으로 존경하게 되지는 않았다. 그의 태도는 현실 속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때로는 고립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기준을 상황에 따라 바꾸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나는 철학이 정답을 제시하는 학문이라기보다는, 스스로의 선택과 기준을 계속해서 돌아보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책은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계속해서 남아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